

한일외교 이면사 담은 통신사일기

‘임란’ 후에만 19편...《해유록》은 일본기행문학의 백미

지난호에 임진왜란 당시의 난중기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1719년(숙종 45)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던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 기사를 인용한 바 있지만, 조선시대에 일본을 왕래한 외교사절들의 기행문은 하나같이 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전기, 그러니까 개국(1392) 이래 임진왜란(1592)에 이르는 기간에만 총 62회의 각종 사신이 대마도·규슈 혹은 일본국왕에게 파견되었는데, 이 시기의 사행(使行) 기록으로는 1420년(세종 2) 보빙사로 파견됐던 송희경(宋希璟)의 《노송당 일본행록》과 1443년(세종 25)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갔던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태 전인 1590년(선조 23) 통신부사로 일본에 갔던 김성일(金誠一)의 《해사록(海槎錄)》 등이 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됐던 한·일간의 국교가 재개된 것은 1607년(선조 40). 이때부터 1811년(순조 11)에 이르기까지 12차례에 걸쳐 통신사(처음 세번은 ‘회담 겸 쇄환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예외없이 통신사(정사·부사) 자신이나 수행원(서장관·제술관·서기 등)의 일기를 남기고 있다. 모두 19편에 이르는 이들 일기는 그때 그때의 일본의 국내사정과 문물제도·풍속·지리 등을 소상히 전해주고 있어, 특히 일본측엔 더없이 소중한 사료(史料)가 되고 있다.

이들 외교사절의 일본기행문은 《해행총제



통신사 행렬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해행총제》)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그중에도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해유록》과 조엄(趙巖, 1719~1777)의 《해사일기(海槎日記)》가 가장 유명하다. 특히 전자는 일본기행문학의 백미로 일러지는데, 일찍이 천태산인 김태준은 그의 《조선한문학사》(1931)에서 《해유록》을 가리켜 《해행총제》에 수록된 수많은 일본기행문을 압도하고, 중국기행문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더불어 기행문학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장의 미묘함과 관찰의 치밀함이 죽히 《열하일기》와 겨룰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신유한이 수행했던 1719년의 통신사 일행은 모두 475명으로, 그해 4월 서울을 떠나 10월에 에도(江戸:동경)에 도착, 약 아홉달 만인 다음해 1월 서울에 귀임했다. 신유한은 경북 고령사람으로 33세 때 문과에 급제, 특히 시문(詩文)에 뛰어나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그러나 서얼 출신

인 탓인지, 벼슬은 고작 봉상시 첨정(종4품)에 그쳤다.

《해사일기》의 저자 조엄은 부제학으로 있을 때인 1764년(영조 40) 통신정사(正使)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는데, 사행길에 대마도와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케 한 것으로 유명하다.

통신사일기를 모은 《해행총제》는 조엄 통신사의 서기로 수행했던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14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자본 4책으로 간행했으며, 이를 다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4년에서 1981년에 걸쳐 전12권으로 국역·간행한 바 있다. 그중 신유한의 《해유록》은 재일교포 사학자 강재연(姜在彦)씨의 탁월한 일어역으로 1974년 일본 평범사의 <동양문고>로 출간, 국내외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21호 / 1997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전장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서
 철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
 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
 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
 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
 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함께 일할 동지를 찾습니다.

우선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책 만드는 일을 사랑하시는 분, 순발력이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기획 과정에서는 강한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일단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도 아는 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메모를 하는 분, 쌍코피도 흘려가며 일을 할 줄 아는 분, 그러면서 노는 데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분, 끝 마무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고야 마는 분, 그러나 무엇보다 동지애가 무엇인지 아는 분을 찾습니다.

모집부문	모집인원	제출서류
출판 기획, 편집	○명(경력 2~3년)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통
디자이너 (Mac 사용 가능자)	○명(경력 3년이상)	-
출판 영업	○명(경력 2~3년)	-

SEHO ■ 자기 소개는 경력울 중심으로 기술하여, 이력서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서류를 보내주시고 전화 상담은 없게 하십시오.
 (주)세호인테리어출판사업부 ☎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82-19 세호빌딩 (주)세호인테리어출판사업부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렉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